

박수 받은 다이빙·수구 '아름다운 도전'

FINA
WORLD CHAMPIONSHIPS
GWANGJU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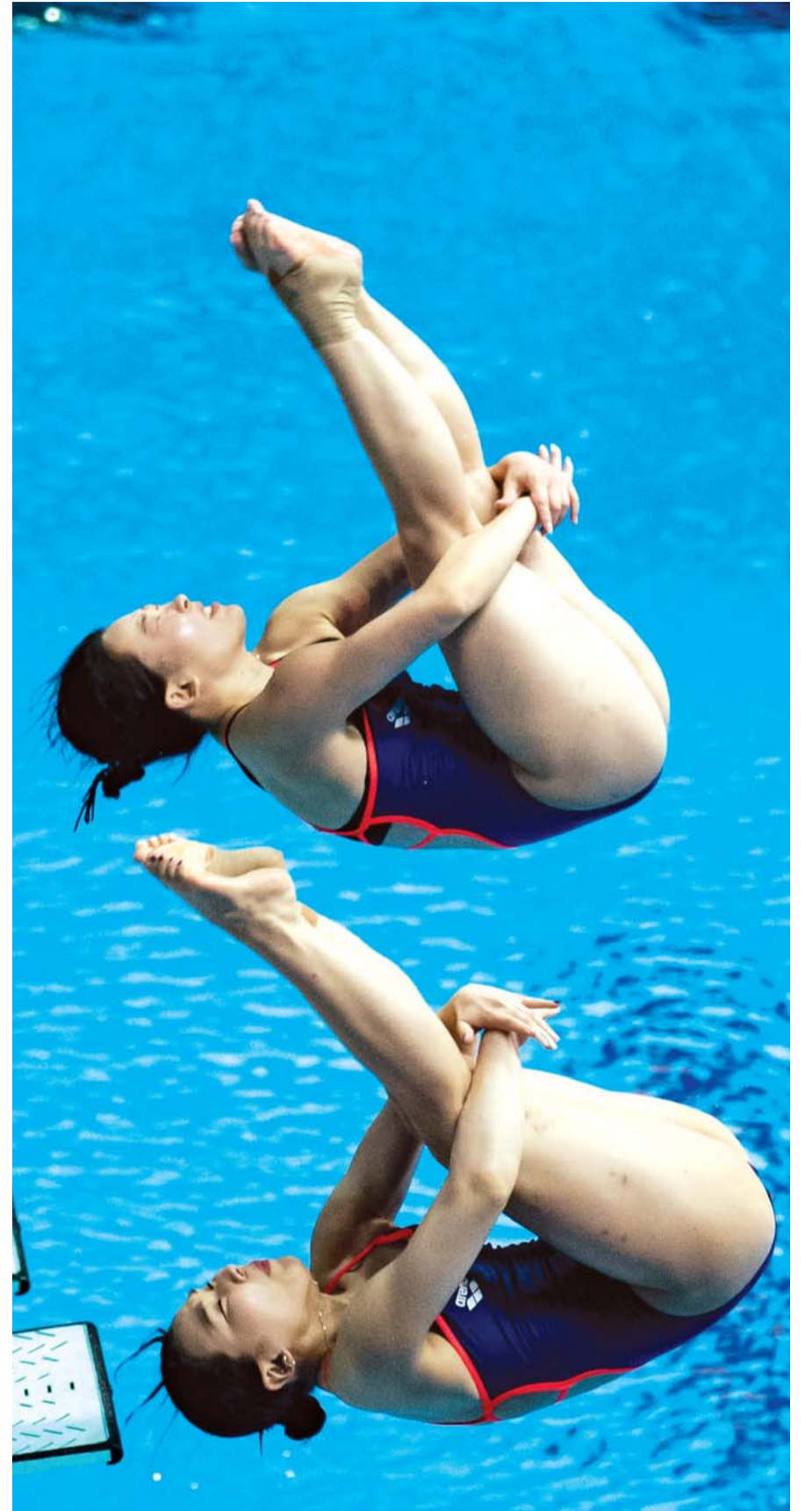
한국 다이빙의 역사를 새로 쓴 '최하위'였다. <관련기사·화보 2·3·4·5·22면> 조은비(24·인천시청)와 김수지(21·울산시청)가 15일 광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국제수영연맹(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3m 싱크로나이즈드 스프링보드 결승에 나섰다. 5차 시기를 뒀던 이들은 258.75점을 얻어 최하위인 1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관중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마지막 연기를 끝낸 뒤 두 사람은 박수 표정으로 경기장에서 퇴장했고, 공동취재구역에서 취재진과 만났다. 이들은 이날 경기를

조은비·김수지 다이빙 여자 3m 스프링보드 사상 첫 결선 진출
남자 수구, 강호 그리스에 3-26 완패 ... 김문수 한국 첫 득점

통해 이 종목 사상 한국의 첫 결선 진출을 이뤘다. 결승에 앞서 오전에 치러진 예선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5차 시기에서 뒤집기에 성공, 11위로 전체 12위까지 주어지는 결승행 티켓을 얻었다. 이들이 결선 스프링보드에 선 순간 한국 다이빙은 새로운 역사를 더한 것이다. 앞서 김수지는 지난 13일 열린 다이빙 여자 1m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다이빙 사상 최초로 여자 수영 종목을 통틀어 여자 선수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 메달리스트가 됐다. 김수지는 "안 다치고 잘 끝내서 기분 좋

다. 흥분해진 느낌이다"며 "연습을 많이 못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다.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은비도 밝은 표정으로 "예선보다 결승 때 더 잘하려고 했는데 긴장이 돼서 실수가 나왔던 것 같다"면서도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잘 끝내서 기분 좋았다"고 활짝 웃었다. 김수지는 생애 가장 많은 축하 문자를 받는 등 이번 대회를 통해 '스타'로 등극했다. 하지만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며 남은 경기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특별취재단=김여울 기자 wool@

이들은 광주라는 무대가 한국 다이빙의 도약 지점이 될 것이라며 동료들의 선전에 기대감을 보였다. 조은비는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회가 열려서 더 기량을 낼 수 있는 것 같다"며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남자수구도 역사적인 도전을 시작했다. 개최국 자격으로 처음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남자 대표팀은 이날 '수구 강호' 그리스와 A조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렀다. 그리스의 높은 벽에 막혀 3-26으로 완패했지만, 한국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첫 출전 기록을 남겼다. 김문수(경기도청)는 그리스 골 망을 흔들면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한국의 첫 득점 주인공이 됐다. /특별취재단=김여울 기자 wool@



한 마음 한 동작 15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여자 3m 싱크로나이즈드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대한민국의 조은비(위)·김수지가 연기하고 있다. /특별취재단 =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수출규제 일본 경제 더 큰 피해" ... 문대통령, 고강도 경고장

"외교적 해결의 장 돌아오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례적으로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나 타름없다"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문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는 이번이 3번째다. 일단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에도 일본 정부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경제를 옹호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 경고하고 외교적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일본의 조치는 상호 의존·공생으로 반세기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조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락물자 말반출과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며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또

"일본이 그런 의혹을 실제로 갖고 있다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번에 전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거듭 지적한 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례적으로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전공대, 한전이 우선 투자해 2022년 개교

전남도 '설립기본계획' 공개

한국전력이 한전공대를 오는 2022년까지 설립, 개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한전공대 개교 시기를 늦추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정부의 법적 지원 근거와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한전공대 설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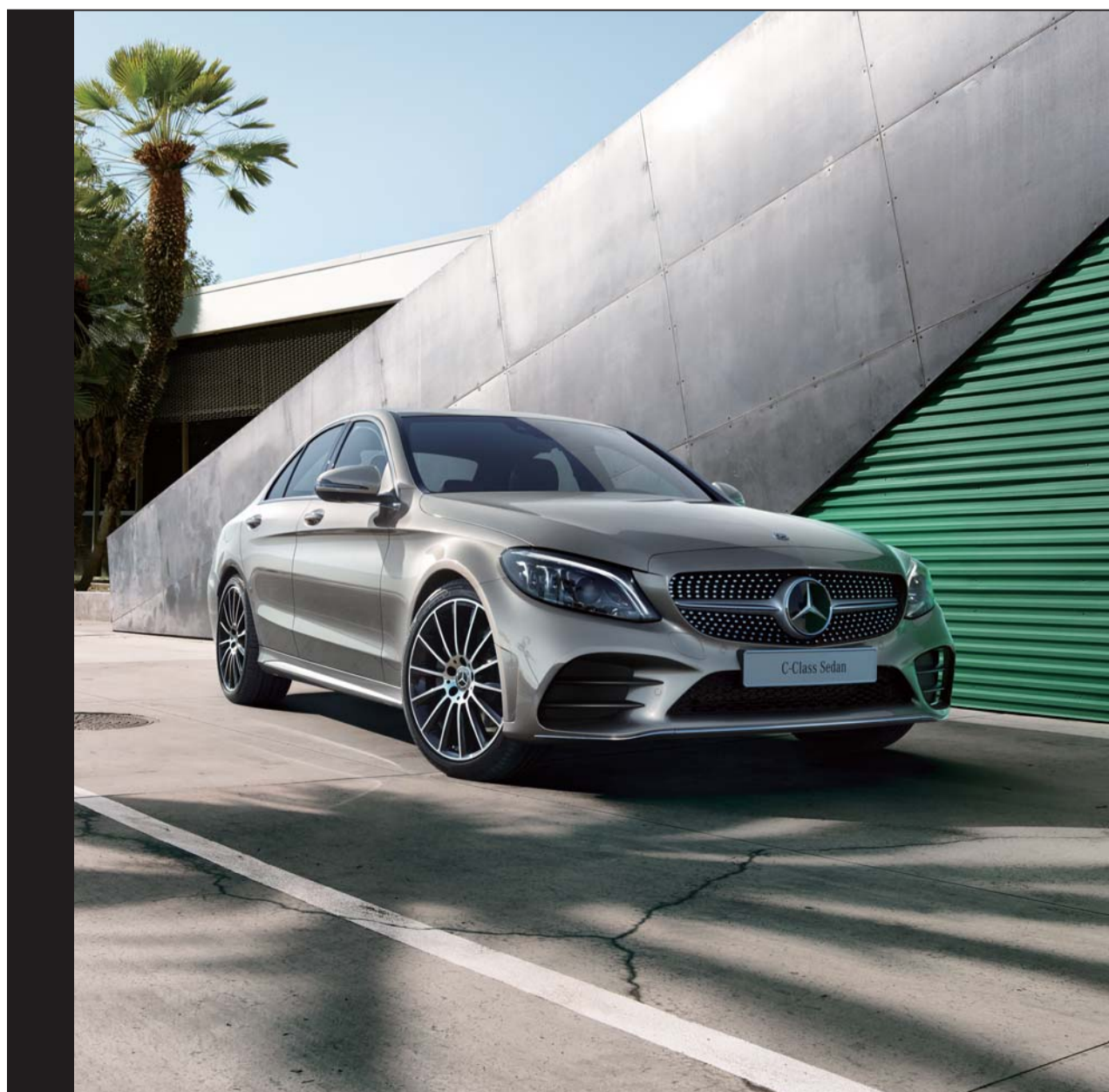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방침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범정부 지원 위원회가 의결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의 지원 계획이 포함됐다. 공개된 지원 방안에는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한전의 투자계획, 정부의 재정지원 및 법적 지원근거 마련 방안, 연구소·클러스터 부지 개발 및 운영 계획 등이 제시됐

다. 우선, 정부 지원 규모는 최소 지자체 수준으로 파악됐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매년 100억원씩 10년간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한전공대 설립에 한전이 우선 투자하도록 한다는 방안을 수립 계획에 담았다. 개교에 필요한 건축 설립을 한전이 총괄하고 정부는 개교 이후

필요한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대학 설립에 필요한 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 뒤 예산을 지원하려면 개교 시기를 늦출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지원금은 관련법을 개정해 전력산업진흥기금 등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마스터플랜은 정부 협의와 범정부위원회 보고를 거쳐 오는 9월 한전 이사회에서 공개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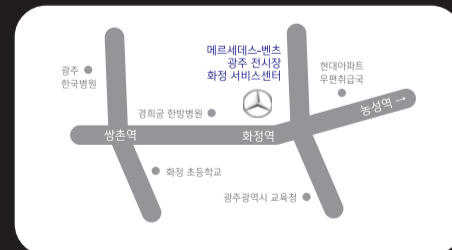
- 막무가내 불법 주·정차 ▶8면
- 굿모닝 예방 - 계곡이 부른다 ▶19면
- 이우성 출연 폭발 - KIA 회장이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ℓ(도시연비: 13.2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CO2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